



재보험의 역할과 재난리스크 관리

김석영 연구위원

선행연구들은 보험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함. OECD(2018)에 따르면 재보험 활용여부는 재보험 비용과 자본 비용에 영향을 받지만, 전 세계 재보험 시장은 재난리스크(Catastrophe Risks) 인수능력 지원과 위험평가 관련 전문지식 제공 등을 통하여 원수보험회사들의 위험관리 능력을 지원하고 있음. 재보험이 재난리스크로 크게 변할 수 있는 손해율(Underwriting Results)의 변동성 감소, 인수능력(Underwriting Capacity) 향상, 새로운 종목 또는 새로운 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됨. OECD(2018)는 재보험시장이 제공하는 국제적 위험분산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국은 재보험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과 함께 감독협력,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선행연구들은 보험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함

- Von Peter, Von Dahlen and Saxena(2012)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난이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임
- Melecky and Raddatz(2011)는 보험침투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고 국가부채 수준도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보험침투율이 낮은 대신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경제적 피해는 적지만 국가부채 수준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임
- Standard & Poor's(2015)는 몇몇 재난들은 국가재정과 국가 신용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자산이 보험으로 보상될 경우 자연재해가 중기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국가신용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됨을 보임

- OECD(2018)에 따르면 전 세계 재보험 시장은 재난리스크(Catastrophe Risks) 인수능력 지원과 위험평가 관련 전문지식 제공 등을 통하여 원수보험회사들의 위험관리 능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보험 활용여부는 재보험 비용과 자본 비용에 영향을 받음

- 재보험 시장은 대규모 재난(Large Catastrophe Events)이후에 나타나는 전체 산업 및 보험 시장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재보험 대신 준비금과 자본을 보유할 수도 있음
- Federal Insurance Office(2014)는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변동성 감소 등 다음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보험을 활용한다고 제시하였음
- 재난리스크로 크게 변할 수 있는 손해율(Underwriting Results)의 변동성 감소
 - 인수능력(Underwriting Capacity) 향상
 - 새로운 종목 또는 새로운 시장 진출 지원
 - 위험 분산
- OECD(2018)는 Federal Insurance Office(2014)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인수능력 향상 측면에서는 재난관련 손해보험 재보험 출재율과 원수보험회사의 자본력대비 총수입보험료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보험을 통해 원수보험회사들의 위험인수 능력이 향상됨을 입증함
-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수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활용하여 자본력보다 더 많은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보여줌
- 새로운 시장진출 측면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 중소형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활용하여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입증함
- 중소형보험회사들의 활동으로 손해보험시장의 집중도와 손해보험 출재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재보험 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전 세계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IAIS(2018)의 자료에 따르면 재보험사가 수재한 재보험료의 34%는 재보험사가 소속된 나라 바깥에서 출재된 것임

〈표 1〉 2016년 기준 지역별 위험전가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재 재보험사				
	북미	유럽	아시아	합계	
출재보험회사	아프리카, 근동	299.85	3,066.23	32.43	3,398.51
	아시아, 호주	5,575.88	19,474.25	2,164.04	27,214.17
	유럽	3,439.41	45,496.33	818.91	49,754.65
	남미	1,536.99	6,257.08	29.60	7,823.67
	북미	99,323.37	35,171.83	629.14	135,124.34
	총 보험료	110,175.50	109,465.72	3,674.12	223,315.34

자료: IAIS(2018)

- 결론적으로 재보험시장이 제공하는 국제적 위험분산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재보험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과 함께 국가간 감독협력,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kiqi**

참고문헌



Federal Insurance Office(2014), “The Breadth and Scope of the Global Reinsurance Market and the Critical Role Such Market Plays in Supporting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Washington, DC

Melecky, M. and C. Raddatz(2011), “How Do Governments Respond after Catastrophes? Natural-Disaster Shocks and the Fiscal Sta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5564, World Bank

IAIS(2018),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 (GIMAR) 201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MF(2018), “India: Technical Note on Insurance Sector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ECD(2018), *The Contribution of Reinsurance Markets to Managing Catastrophe Risk*, www.oecd.org/finance/the-contribution-of-reinsurance-markets-to-managing-catastrophe-risk.pdf

Standard & Poor’s(2015), “The Heat Is On: How Climate Change Can Impact Sovereign Ratings”, Standard & Poor’s Rating Service

Von Peter, Von Dahlen and Saxena(2012), “Unmitigated disasters? New evidence on the macroeconomic cost of natural catastrophes”, BIS Working Paper, No. 39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https://www.bis.org/publ/work394.pdf>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331/WPS5564.pdf?sequence=1&isAllowed=y>(2018. 3. 22)

https://www.agefi.com/uploads/media/S_P_The_Heat_Is_On_How_Climate_Change_Can_Impact_Sovereign_Ratings_25-11-2015.pdf(2018. 3. 22)